

iM FX Brief

엇갈린 미-일 금리정책의 여진은?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매파 연준과 달러 강세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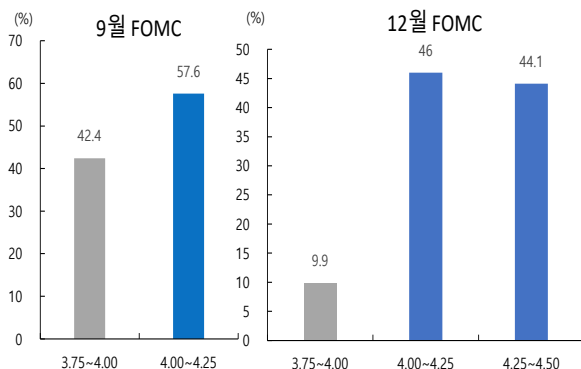
- 매파적 9월 FOMC 회의 결과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 전환됨. 9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이 결정되고 연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마저 열어 두면서 달러화는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함. 여기에 100달러를 상회하는 유가 불안도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함
- 유로화는 약세 전환됨. 매파적 미 연준, 고유가 그리고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 및 장기채 직접 매각 중단 등의 영향 등으로 유로화는 하락함
- 달러-엔 환율도 큰 폭 상승함. 시장 예상대로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2명의 위원이 금리인상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이 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짐
- 위안화는 강합세를 기록함. 달러 강세와 중국 8월 주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지 영향으로 위안화는 소폭의 강세를 기록함
- 호주 달러는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긴축 강화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받은 영향으로 하락함
- 달러-원 환율은 큰 폭 상승함. 원화 약세 재료만이 부각됨. 고유가, 달러 강세 및 엔 약세,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도 확대 그리고 한-미 투자협상 타결 지연 등이 달러-원 환율 급등 요인으로 작용함

	9월 18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100.2	1.11	1.93
유로-달러	1,149	-0.97	-2.21
달러-엔	156.9	2.13	0.11
역외 달러-위안	6.70	-0.19	-4.02
호주달러-달러	0.71	-0.67	6.71
달러-원	1,385.5	3.20	-4.09

금주: 유가 추가 강세와 엔 추가 약세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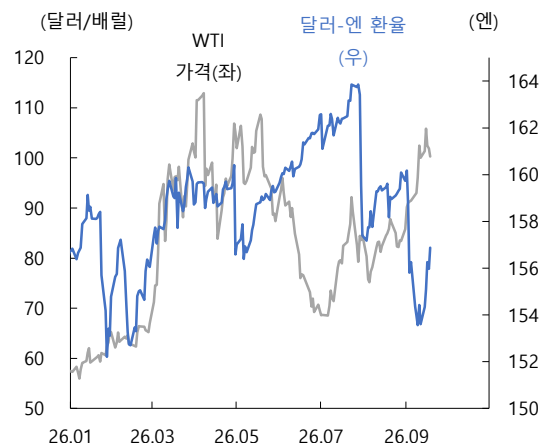
-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이벤트 마무리된 이후 글로벌 외환시장내 주요 변수는 유가와 엔화 추이임. 미국-이란 갈등 지속 속에 사우디와 후티 반군간 무력 충돌 등 유가를 추가로 자극할 우려가 잠재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됨. 또한 우려보다 완화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기조로 엔화가 추가 약세를 보일지도 중요 관심사임. 만약 엔화의 추가 약세 흐름이 가시화된다면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여지가 큼. 달러-엔 환율이 유가 추이와 더불어 외환시장에 중요 변수 역할을 할 것임
- 금주 달러-원 환율 예상 밴드는 1,35~1,400원으로 전망함

그림1. 연내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확률이 높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유가 추가 상승 여부와 더불어 엔화 추가 약세도 주목해야 할 변수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